

# 팔월 윤달 '생전 예수 재' 전국 사암서 입재

## 참회공덕으로 업장소멸 기원

지난 31일 해인사가 생전에 수재 입재식을 갖는 등 이달들어 전국 사찰에서는 윤달 회향에 맞추어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가 입재되고 있다.

윤년은 음력으로 8월이 거듭된다. 태음력으로 윤달이 된 해에는 크고작은 대부분의 사찰이 생전예수재를 봉행한다.

생전예수재는 자력선행의 요소가 강한 아름다운 종승임에 틀림없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이같은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가 망각된 채 단순한 전통의례로만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일반 불자들의 경우에는 계행과 참회가 따르지 않은 채 물질적 보시로만 참여하는 의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齋)로서, 속설에는 자신의 49재를 미리 지내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역수(逆修)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재를 성대하게 지내 그 사람의 사후 복락과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할지라도 그 공덕은 실제 재를 지내는 당사자에게 대부분 돌아가지 죽은 사람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수재는 불교 수행의 근본 입장인 자력해탈(自力解脫)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불보살과 호법신중의 가피력 아래 스스로의 정성된 수행으로 자신의 미래를 닦아가는 의례이다.



▷ 생전예수재 의식중에 펼쳐지는 바라춤.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적어도 예수재를 지내는 기간만이라도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여느때와는 달리 정결하고 청정하게 유지해야만 올바른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예수재란 평상시의 선행에 덧붙여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참다운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

## "공양의식 중시...미리 지내는 49재"

이와 관련 지난 달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포교용 자료집 <생전예수재>를 발행, 보급에 나섰다. 자료집 <생전예수재>는 예수재에 갖는 의미를 제시하고, 불자들이 하여금 올바른 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료집의 내용을 간추려 실는다.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참회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서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는 예수재는 경전을 독송하여 해탈과 열반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며, 불보살과 명부시왕을 비롯한 숭한 선현에게 공양을 올려 그들의 보시지 않는 도움에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다.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양은 부모나 스승, 불보살 및 온갖 선현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정성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등향차 꽃 과일 곡물 등을 공양물로 사용한다. 공양은 존경할 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보시이다.

선현에게 행하는 보시는 그들이 지닌 감화력을 통해 모든 중생들에게까지 두루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 작은 정성의 힘이 못 중생을 제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즉 공양

을 통해 나와 일체의 선연과 못 중생이 선연으로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댓기도 바라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은 선연 중의 선연이다. 아무리 작은 선연이라도 그 과보는 헛되지 않다.

그러나 최고의 공양은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뤄 열반을 체득하는 것이다. 예수재 의식 중에 보리심을 권장하고 경전을 읽는 절차가 삽입되어 있는 것은 예수재를 지내는 사람이 최고의 공양으로 나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불자들은 나의 생명이 나에게 지극히 중요하듯 다른 이의 생명도 나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를 있게 한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일야말로 참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불자들이 앞장서 깨닫는 마음으로 계를 지키고 자연과 인류를 사랑하는 보살행을 실천할 때 나도 사회도 함께 구제된다.

### 예수재는 왜 지내나

생전예수재는 살아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 참다운 공양의 의미

예수재 의식은 재단에 모셔진 선중(聖衆)들에 대한 공양의 절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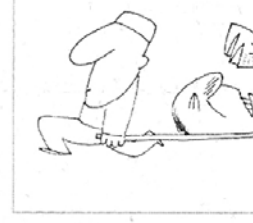
삼중백화점 붕괴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직접적인 가족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해 듣고 목격

트레스장애를 앓을 확률이 높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외상이란 말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인 안상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위협을 목격하는 것도 외상에 해당된다. 이런 외상에 대한 정의를 두고 보면 이번 삼중백화점의 붕괴

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개 세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는 급성장애를 일으키는 데, 이런 경우 대개 3개월 정도의 증상이 진행되다가 치료에 의해 증상이 없어지게 된다. 둘째로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장애인데, 이는 대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 여러가지 장애

증상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



라 결정이 된다. 위협적인 사건의 심각한 정도, 외상의 기간, 얼마나 직접적인 자극을 받았는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어릴 때의 경험, 인격의 양상, 정신장애 전력 등이 또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외상을 받은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극심하면 아무런 소인이 없다고 해도 장애는 일어난다.

### 이런 후 건강칼럼

<32>

### 자연성 스트레스장애

한 충격만으로도 심각한 외상을 받았다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직접 외상을 경험한 1천5백명이 넘는 피해자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급만성으로 외상후 스

### 사고로 인한 외상 심하면 정신 장애 확률높아

사건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단번에 외상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 국민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장애에 걸릴 유병률은 14% 정도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개인들이 걸릴 유병률은 58% 수준에 이른다니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이 외

정되거나 진행이 가속된다면, 이는 만성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보아야 한다.

세번째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외상을 받은 연후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기에 따러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6개월 정도의 시

간이 경과한 연후에 여러가지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증상이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자연성 이란 말을 붙여 자연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을 붙인다.

외상을 받은 후 어떤 모습으로 경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영향을 하는 요소에 따

김재경 기자

### 만화 법구경

• 폭력의 장 • 노기 서린 말은 고통이 된다

이 할 원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선행의 길잡이!

**현대 불교 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충청남도지사**

- 전화 0631-281-2534

**충청북도지사**

- 전화 0416-856-3280

성아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든 조각돌

내가 도를 지극히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무리 찾아와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42장경을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라즈니쉬의 환광주 이경옥 옮김 신국문 2권 각권 7,500원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보석을 준다면 원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놀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법령 저

건강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투병중인 한 출가인의 소망기

고통스럽고 외롭고 잠시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가늠하면서 살아 온 수행인이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의 결정체

..... 법문 8,000원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옛날과 지금, 부적의 결판만 !!!

김백만 판저 값 35,000원

**여름불교학교**

1. 우리들의 부처님 5. 합장하는 생활  
2. 동글고 밝은 빛 부처님 말씀 1학기  
3. 마음의 등불 부처님 말씀 2학기  
4. 기적하신 부처님 각권 값 2,500원

130-070 서울·동대문구 공우동 751-14  
전화: 02) 921-8434 · 929-3470 팩스: 02) 929-3470

관음출판사